



기획 · 출력 · 인쇄 토털솔루션 갖춘 ‘마이문화사’ “까다로운 품질관리로 맡겨진 일에 최선”

인쇄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 인쇄가 있다. 곧 어떤 문화도 인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본지에서는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원사를 찾아가 인쇄노하우에 대해 들어본다. 이번호의 주인공은 을지로에 위치한 마이문화사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2001년 설립된 마이문화사(대표 이상래)는 기획, 출판, CTP 출력, 인쇄 등을 갖춘 작지만 강한 인쇄사다.

을지로에 위치한 인쇄사들이 그렇듯 한 곳에 밀집해 있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 마이문화사 역시 인쇄사, 사무실, 소부실, CTP 출력실 등이 모두 흩어져 있다. 그래서 2층 건물 중 1층에는 미쓰비시 T3절 4색기 등 인쇄시설이, 2층에는 소부실이 있다. 인쇄실에서 몇 걸음 안되는 거리에 사무실이, 그곳에서 또다시 3분 정도 떨어진 곳에 CTP 출력실이 있다. 장층동에는 CTP 출력실과 기획·디자인실이 있다.

이상래 사장은 “우리 회사는 인쇄실, 사무실, CTP 출력실이 각각 흩어져 있다. 중구청 뒤쪽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이곳은 장소가 협소해 인쇄기 및 출력장비를 한 곳에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겠지

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응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벌써 50대 중반... 고등학교 졸업 후 인쇄 한길만”

이상래 대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부터 35년 동안 인쇄의 한길만 걸어왔다.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난 이상래 대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차비만 손에 쥔 채 서울로 올라왔다. 친척 중 한 명이 인쇄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터라 그 곳에서 오프셋인쇄 기술을 배웠다. 청우문화사, 양지사 등을 거쳐 1997년부터는 혼자서 단색 오프셋인쇄기를 운영했다. 그러다 2001





마이문화사 인쇄실, 소부실, CTP출력실

년 마이문화사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시작했다. 2006년에는 디자인실을 설립하고, 2011년 9월 다이니폰스크린의 CTP를 도입해 출력실을 열었으며, 올해 5월에는 프리즘 UV CTP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상래 대표는 “작지만 소박하게 인쇄사를 시작했다. 35년 인쇄 경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직원들 모두 정으로 똘똘 뭉쳐 있다. 35년 동안 을지로 골목에 있었는데, 앞으로 35년도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탈로그·작품집·홍보물 등 다양한 인쇄물 작업

마이문화사는 50여개의 기획사와 100여개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 관공서 인쇄물을 비롯해 기업체와 학교의 카탈로그, 작품집, 홍보물 등 다양한 인쇄물을 제작·납품하고 있다. 특히 명품 여성 주얼리 브랜드인 메트로시티의 카탈로그와 쇼핑백은 최고의 품질로 납품하고 있다.

이상래 대표는 “우리 회사는 기획부터 마지막 후공정까지 전 직

원이 최선을 다해 작업하고 있다. 최근 소량 다품종 인쇄가 많아지고 있는데, 적은 인쇄물일수록 더욱 철저한 감리를 통해 고품질 인쇄물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 인연을 맺은 고객들은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고객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쇄물에 조그마한 흠집이 있어도 모두 반쯤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욱 까다롭게 인쇄물을 확인하고 납품하고 있다. 까다로운 품질관리가 고객들과 우리 회사가 모두 윈윈하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

주소 |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166

전화 | 02-2272-7892 팩스 | 02-2272-7897

마이문화사 연혁

- 2001년 9월 마이문화사 설립
- 2006년 디자인실 설립
- 2011년 9월 다이니폰스크린 CTP 도입
- 2013년 5월 프리즘 UV CTP 도입

미니인터뷰



마이문화사 이상래 대표

“을지로 골목은 제2의 고향”

많은 일을 묵묵히 하고 있다. 물론 30년 동안 이곳 사람들도 조금씩 바뀌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술을 함께 마시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 이웃간의 정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을지로나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할 생각은 없나?

을지로에서 35년을 살아왔다. 그래서 이곳이 나에게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가 좁아 인쇄사, 사무실, CTP실이 각

각 떨어져 있는데, 불편하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을 떠날 생각은 없다.

대한인쇄문화협회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협회를 가입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이익은 없다. 하지만 인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쇄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해 가입하게 됐다. 단체 역시 인쇄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정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길 바란다.

을지로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35년전 인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서울에는 골목길이 많았다. 각각의 골목마다 사람들의 추억과 시간이 만들어낸 특징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던 골목길이 사라지고 그 곳에 커다란 건물이 세워졌다. 하지만 이곳 을지로 인쇄 골목길은 아직도 옛날의 감성과 정이 남아 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이어진 인쇄사들은 언제나처럼 자신들이